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0. 18.(수) 8:00 < 10.18.(수) 석간 > 배포 2023. 10. 17.(화)

장관,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 당부

- 최근 국제유가 상승 관련,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 시장 점검
- 수도권 알뜰주유소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0. 18.(수)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산업부장관, 정유 4사(社)(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하여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단속"할 것을 밝혔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하여 더욱 많은 국민이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사용권(바우처)을 통해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 '23. 10. 16.(월) 범부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10. 31.→12. 31.) 발표

한편, 아직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앞으로 사태 전개에 따라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실시간으로 점검(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응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044-203-52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

1. 추진배경

□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생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기업의 역량 집중** 필요

* 국내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 기록(8월 3.4%, 9월 3.7%)

□ 특히,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국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 됨에 따라 **유가 안정화를 위한 정유업계**의 적극적 역할 당부

* '23.10.16(월) 국제유가 $89.65(Brent)

2.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0.18(수) 8:00-9:00,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 **(참석자) 산업부장관,** 정유4사 대표, 석유공사 사장, 석유협회 부회장 등

< 회의 순서 >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8:00~8:03	(03')	▸ 인사 말씀	**산업부 장관**
8:03~8:08	(05')	▸ 최근 석유가격 동향 및 대응계획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8:08~8:18	(10')	▸ 최근 정유사·주유소 석유 공급 및 판매가격 동향	석유공사
8:18~8:28	(10')	▸ 석유 업계 수급·가격 현황	석유협회
8:28~8:58	(30')	▸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8:58~9:00	(02')	▸ 마무리 말씀	**산업부 장관**